

○여성 취업에 관한 단상○

지금 자신의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승 아

도서출판 (주)대원 국제부



요즘 원서를 쓰기 시작하는 분주한 수험생들과 그 수험생들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부모님들의 모습이 여기저기서 눈에 띈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던가…….

문득, 4년 전 이맘 때의 흑독스러웠던 겨울이 떠오른다. 그 때의 나도 여느 고3들처럼 아무 생각없이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철없이 대학문을 바라보았던 것 같다. 어쨌든 대학만 들어가면 꿈을 꿀 수 없는 국어책으로부터, 찍기만 하는 수학으로부터, 외워대기만 하는 영어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만 같아서였다. 그런 생각없는 나를 혼내주기 위함이었는지

전기대 지원에서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다. 그리고 후기대 지원 원서를 넣은 곳이 지금의 세명대학교였다. 학과 선택을 두고도 어떤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저 우연히 눈을 두게 된 곳이 일어일문학과였다. 내가 입학할 당시 일어일문학과는 신설학과로 모집정원이 40명이었다. 일어를 유창하게 하고 싶다는 작은 포부조차도 없이 입학을 했다.

대학 생활 시작.

그 출발은 정말 힘겨웠다. 신설학과라는 이유로 타 학과와 동등한 위치에 서는 일도 쉽지 않았고, 처음으로 가족들과 떨어져 외딴 곳에서 혼자 생활하기를 시작했던 때였

다. 그렇다고 전공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대단한 학교를 들어간 것도 아니었다. 지방이다보니 서울만큼 놀거리가 풍성했던 것도 아니었다. 모든 것에 대한 적응의 시작이었고, 그 적응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혼란스러움과 뒤죽박죽 엉킨 들뜬 분위기 속에 1학년을 어영부영 보내고 말았다.

적응이 쉽지 않았던 지방대학 생활

대학 방학은 또 왜 그렇게 긴 건지, 그 긴긴 방학은 뭘 하며 보내야 하는 건지 막막했다. 우선은 남들 하는 대로 학원 수강 신청을 하고 그럭저럭 분주한 생활을 했다. 2학년이 되면서 전공은 배로 늘어났다. 후배들이 들어오고, 교수님이 더 오시면서 학과 분위기는 사뭇 달라지기 시작했다. 전공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학교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욕심을 내어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없던 관심이 생겨났고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해가 거듭되면서 계속 후배들의 수는 늘어났고, 새 교수님들이 오셨다. 우리는 부족했던 한 부분, 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다. 교수님들께서 우리들에게 갖는 관심과 애정의 표현은 열정적이었다. 그 뒷받침에 우리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교수님들은 이제까지의 구태의연한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커리큘럼을 단행하기 시작하셨다. NHK 위성수신, 고급 일본어 청해, Business 日本語, free talking 수업 방식, 일본어 능력시험의 졸업 필수화 등

으로 교수님들은 물론 우리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93학번들의 졸업이 다가오자 취업 대책이 시급했던 것이다. 물론 대학이란 곳이 취업을 위한 도구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 사회의 취업의 문이 좁다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도, 우리를 아끼시는 교수님들도 아시는 일이기에 이런 수업방식은 절실하게 다가왔던 것이다. 학교 수업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부분, 지방대 학생들이 방학을 최대한 이용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교수님들이 배려하신 것이었다.

열정적인 교수님들과 새로운 커리큘럼과의 만남

'93학번들의 졸업을 앞두고, 또 다른 취업전략이 불가피했다. 교수님들은 그 대안으로 취업을 대비한 홍보책자 제작을 제시하였다. 그 제작을 위해 준비할 것은 너무나 많았다. 우선 우리는 학교 축제를 이용해 자금을 만들고, 교수님들과 학생 임원진들이 중심이 되어 문구 하나 하나, 사진 한 장 한 장을 온 정성을 기울여 제작했다. 그렇게 공들인 시간을 지나 하나의 작은 책자를 우리들 손에 쥐게 되었다.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우리는 그 책자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는 안일한 생각은 하지 않았다. 곧 그 책자를 가지고 여기저기 홍보작업에 나섰다. 우선 가까운 언론사에 알리고, 탄탄한 중소기업들을 선택해 홍보책자를 발송했다. 그러는 사이, 우리들의 이야기는 널리 퍼져 나갔고, 전국으로 방송되기도 했다. 그런 일들을 하나 둘 밟아가며 우리는 좀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사회에서 바라보는 지방대학 출신들에 대한 못 미더운 눈빛을 불식시키기란 역부족이었다. 모든 일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다. 홍보책자를 받은 기업 쪽에서의 반응은 생각보다 냉담했다. 더 이상 앉아서 기다리고만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젠 스스로 찾기 시작했다. 열심히 이력서를 쓰고, 어떻게 나를 알려야 할 건지 고민하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과의 경쟁 속에서 서류전형부터 통과할 수 있는지 등등 작은 것부터 전략이 필요했다. 그리고 운 좋게 어려운 취업의 문을 통과했다.

치열했던 취업 준비작업

취업을 하고보니, 또 새롭게 부딪쳐 오는 일들이 많다. 우선 대학 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하지 못한 내 자신부터 꾸짖기 시작했다. 사회는 전공 공부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은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자만심에 쌓여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사회는 냉정하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내가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웃는 낯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 상사들 앞에서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부조리한 모습들에 큰 소리로 지적하는 사람들을 더 우습게 만드는 것이 사회였다. 아직은 사회 초년생인 내가 보고 느끼는 사회는 안타깝고 병든 모습들뿐이다. 서로의 이기심에 치여 있고, 자신들 이익에 급급하며, 나보다는 조직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나의 대학 생활은 이미 지금 막바지에 접

어들었기에 더더욱 아쉬움이 크다. 처음엔 지방대학교를 다니는 내 자신이 부끄러워 남들에게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조차 말하기를 꺼려했다. 누가 내게 “어느 대학 다녀요?”라고 묻는 게 가장 싫은 질문이었다. 그러나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난 내 자신을 발전시키려고 무던히 애써왔다.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그런 노력이 너무 당연한 것이었지만,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나는 전공에 있어서만은 서울의 어느 대학 출신들보다 더 잘 하겠다는 욕심을 갖고 있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또한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덕분에 이제는 어느 누가 물어도 자신있게 대답한다. “세명대학교 다닙니다.”라고 말이다. 방학은 어느 친구들보다 성실히 생활했고, 내 학교 내 학과에 대한 자부심은 커져만 갔다. 대학을 입학할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변화한 것이다. 그렇게까지 발전해 갈 수 있었던 건 함께 공부한 친구들과, 언제나 사소한 모든 것까지 배려와 이해를 아끼지 않던 교수님들이 계셨기 때문이었다.

“세명대학교 다닙니다.”

나는 내 자신이 참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한다. 고등학교 동창생들도 여러 명이 지방대를 다녔지만, 자기 학교에 대해, 학과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거나 자신의 전공을 살리는 친구들은 드물다. 그런 친구들은 나를 보며 지방대 출신으로 성공했다고 우스갯소리들을 늘어놓는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히 말해 두고 싶은 게 있다. 난 적어도 게으름을 피우지는 않았다. 그것

은 내가 지방대 학생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자세였다. 내가 지방대를 다녔다고 해서 서울의 대학을 나온 사람들보다 뒤떨어진 교육을 받았다고 실력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학생들에게 희생적인 교수님들께 제대로 교육받았고, 취업을 위해서라면 보다 실질적인 교육을 받은 셈이다.

그러나 아직 이 사회에는 내 생각만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 여전히 사회에는 지방대 출신들과 여성인력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며 주어지는 기회가 그만큼 적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학생들이 스스로가 자신의 자리에서 자만하고 안주해 있다는 것이다.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나 그 직장의 유명세가 아니다. 자신의 적성과 전공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취업에 대해서는 초조해하거나 불안에 떨 필요는 없다. 모든 이에게 기회란 있다. 그러나 자기 앞에 온 기회는 준비한 사람만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준비한 사람만이 잡을 수 있는 기회

자, 지금 자신의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매몰찬 한 마디를 해주고 싶다.

자신을 들여다봐야 한다. 지금 그 자리에서 회회낙락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 사회는 학교처럼 다정하지도 낭만적이지도 않다. 객관적이며 너무나 현실적이다. 때로는 뜻하지 않은 일들에 어이없이 부딪히게도 되고, 아무런 변명도 못하고 오해를 살 수도 있다. 대학에서 전

공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사회 활동을 하기 어렵다. 전공 이외에 여러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은 필수이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웃으며 대할 수 있는 요령도 터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직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시간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기본적으로는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고, 다음으로 책도 많이 읽고(특히,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의 관련 서적), 기본적으로 익혀야 할 것들을 지금 준비해 두어야 한다. 예를 들면 외국어 하나쯤이 그러할 것이고, 요즘은 누구나 다룰 줄 안다는 컴퓨터가 그러할 것이다. 그 정도만도 대학 생활 동안 완벽하게 준비하려면 시간이 빠듯할 것이다.

내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았다. 취업을 한 후, 때때로 후배들에게 이와 관련된 질문들을 받곤 하는데, 그런 후배들에게 꼭 한 가지를 전하고 싶다.

지방대 학생, 여학생 후배들에게...

이미 고정관념이 있는 사회, 그 사회를 흔들리게 하려면 지방대 출신들은, 여성들은 몇 배로 노력해야 한다. '해도 안 된다, 사회는 이미 우리들에게 아무런 기대도 않는다'는 것을 핑계로 주저앉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하면 된다. 기업이 그렇게 된 것에는 우리들 스스로의 책임도 있는 것이다. 취업 후 직장의 한 상사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지방대 출신들을 차별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뽑을 의향이 있다. 하지만 제대로 실력을 갖춘 이들이 드물다.”

바로 그 말에 대답이 있다.

이제 자신의 위치를 자각했다면 움직여야 한다. 쉽듯이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취업의 문은 더욱더 좁고 작아질 것이며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다. 대학 생활 동안 아무런 준비도,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가 막상 취업을 하기 위해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어보고 쉽게 풀리지 않으면 사람들은 모두 사회부터 탓하고 자신의 환경을 탓하기 시작한다.

“여전히 사회는 지방대학 출신을 차별하고, 여성들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자신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자문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대학 생활 동안 자신의 발전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이들이라면,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사회를 비판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다시 한 번 더 도전해보는 노력을 보일 것이다.

졸업을 앞두고 아직 취업을 못한 이들은 아마도 매우 초조할 듯하다. 주위의 친구들을 보면 그 초조함 때문에 오히려 평소만큼 자신의 일을 해내지 못하는 모습을 더러 본다. 그러나 초조해 한다고 일이 풀리는 것은 아니다. 한숨만 짓고 걱정만 한다고

해서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는 것도 아니다. 결국 누가 대신 해 줄 수도 없는 내 일이라면, 내가 자발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어쩌면 때로는 자만심이 조금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지나친 자신감으로 거들먹거린다면 안 되겠지만, 스스로 너무나 자신감이 없으면 그 또한 장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사회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말해 준다는 게 어쩌면 이미 다 아는 이야기들을 되풀이 한 것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나, 취업을 앞둔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공감을 줄 수 있으면 한다. 아직 취업의 문 앞에서 주저하는 이들이여.

노력하라!

준비하라!

그리고, 자신을 발전시키고 자신감을 가져라!

그리하면 취업문은 커다랗게 다가오며, 당당하게 걸어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

이승아/세명대학교 일어일문학과를 졸업('97년 2월 예정)하고, 현재 도서출판 (주)대원 국제부에 재직중이다.